‘믿음’에서 ‘체감’으로의 변화

(이사야 9:1~21)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서 ‘체감’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에서 ‘체감’으로의 변화

제목을 자세히 풀어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체감으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주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서로 상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7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북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코앞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절체절명 위기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독특한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을 실로아 냇물로 비유하였고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문맥상 급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과 그 군대를 천지를 뒤덮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비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선민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상응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만 합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더 큰 사실로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조차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마음이 느껴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선민들이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선시하여 크게 받아들이고 나서야 임마누엘의 예언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도와주셔서 잘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들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실로아의 냇물처럼 사소하게 느끼면서,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에 대해서는 급류처럼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육체로 접하는 일들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앗수르라는 더 큰 위기를 보내셔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문제를 우선시하여 체감을 하고서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상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크게 체감하고 임마누엘의 의미에 상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던 삶이 광명과 자유와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임마누엘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가 약해지고 나도 즐거운 삶을 사는 대신에 어두움에 묻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지역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변방지역이고 경계부분입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려는 적들의 침공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함락되지 않았더라도 이 변방지역들은 반복해서 초토화되었던 것입니다.

베가와 르신의 동맹군도 결국 앗수르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켜졌으나 이 변방지역들은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므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비주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곳들이 먼저 빛이 비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하였습니다.

의미적으로 모순되는 두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났고'라는 말은 없던 존재가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말은 이미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 모습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렇게 오실 예수님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소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니 티끌 같은 내 삶의 영역의 일보다 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체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일들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이론을 체감의 상태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래의 크기대로 체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라가 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자면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들은 하나님을 실로아의 냇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고 본래의 하나님의 크기를 체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체감케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삶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는 일이 나타납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즐거움이 끊이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흑암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살고 있는지 사망의 그늘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흑암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믿음이 체감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보편적 현상입니다.

교인들이나 선민들은 성경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의 문제는 다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론을 통해 설교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교회의 재정문제를 체감합니다. 이론대로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회의 재정문제를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체감하기로는 교회재정과 교인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훨씬 더 크게 체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론적 믿음에서 체감으로 옮겨가지 못한 채 세상에 묶여있는 삶이 흑암의 삶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래의 크기대로 볼 수 없으니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만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에서 체감의 상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1절에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요단 동편의 멸시당하는 지방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곳이 패배자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주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별로 대단하고 큰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역전되어서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세상적인 가치를 덜 가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빠르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멀어져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들은 오히려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가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흑암은 짙어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해가 뜨는 새벽 동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체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사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그늘이고 흑암 속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업 문제의 크기보다 본래의 하나님 크기를 체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론적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체감하기로는 세상을 크게 여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크게 체감하는 내가 바뀌어야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비해 사소하기 그지없는 세상일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체감의 체질은 유전죄적인 것이므로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체감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죽은 자로 여길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신 하나님이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즐거움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의 삶이 흑암에 있는지 광명에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연애할 때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는 얼핏 자연스럽게 여겨지

지만 흑암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광명의 상태로 바뀌면 배우자가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때가 언제일까요? 화장을 하거나 깔끔하게 차려입었을 때일까요? 애교를 부릴 때일까요? 아닙니다. 광명의 상태에서는 화장을 안 해도, 뱃살이 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체감될 때에 배우자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배우자를 보면 신앙이 없던 시절에 연애할 때보다 더 많은 매력이 드러나고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비록 돈 못 벌고 당장 화상 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면 그 존재까지도 고맙고 즐거워집니다. 이 말이 진실임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일등을 해야 예뻐 보일까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인물이 뛰어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 체감될 때에 자녀에게 고마움이 생겨납니다. 아이의 부모인 것이 즐거워집니다.
사업이 즐거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벌리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체감할 때에 사업은 즐거워집니다. 심지어 돈이 안 벌려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실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면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흑암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흑암이 된 마음에서는 배우자가 밉고 괘씸해집니다.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삶은 흑암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사업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라는 것은 압니다. 이 이론이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을 정말로 체감하는 사람이 백 명만 있어도 이 나라의 안보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마주하는 순간에 배우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크게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먼저 체감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된다면 어느덧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즐겁고 자꾸 웃게 됩니다. 늙어서 주름이 생겼고 뱃살도 늘었는데 자꾸만 예쁘게 보입니다. 돈도 못 벌어 오는데 고맙습니다. 이 즐거움이 바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뀐 삶의 증거입니다.
이 일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크게 체감하는 내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하면 의식의 뒤에서부터 영

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제일 크신 하나님이 실제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즐거움의 세상이 되고 우리는 즐거움의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살면서 잘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만큼은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함으로써 흑암이 바뀌어 광명이 되게 하시고, 억압이 자유로, 슬픔과 걱정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